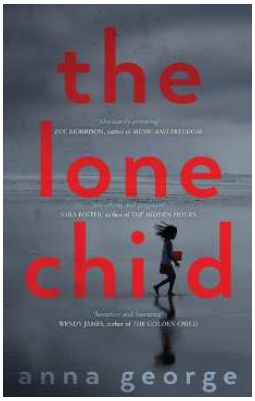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ONE CHILD
가제 : 외로운 아이
저자 : Anna George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7월 3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흡입력이 대단한 소설.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그 냉혹한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아이와 타인의 아이를 향한 여성들의 이야기다" – 『*Music and Freedom*』의 작가 조이 모리슨**
* **"때때로 암울하고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모성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포착한 이야기. 작가의 이 매혹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유대에서 구원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 『*The Golden Child*』의 작가 웬디 제임스**

혈연도, 지인의 아이도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지 못할 친근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 대상이 어린 아이라면, 그것도 여러모로 썩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아이라 안쓰러운 마음을 넘어 모성본능이 발동한다면 그 아이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데뷔소설로 살인으로 이어진 가정 폭력을 다룬 심리스릴러 『What Came Before』로 주목 받은 신예 작가가 인간의 본능,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무거운 소재에 서스펜스를 가미한 두 번째 소설로 돌아왔다. 부모와 자식으로 빚어지는 삼각형의 완전한 구조 중 어느 한 쪽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발버둥쳐도 억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혼란 속에서 낯선 아이와 우연히 만난 주인공과 아이의 엄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네브는 젊은 나이에 재능 있는 건축가로 꽤 큰 성공을 거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에도 별로 놀라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은 일곱 살 때부터 수없이 연습하고 단련시켜온 결과일 뿐, 잔잔한 표면 안쪽에서는 늘 불안함과 외로움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일곱 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다른 가족도, 친척도 하나 없이 혼자 세상을 헤쳐가야 했던 삶이 네브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다행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까지 가졌지만, 이미 가정이 있었던 그는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 네브를 버리고 아내에게로 돌아갔다. 서른 아홉의 나이에 또 다시 홀로 남은 삶. 이번에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 클리프가 곁에 있었지만 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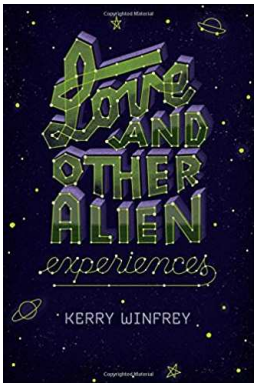
난아기를 키우고 돌보는 일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네브는 늘 정돈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던 삶이 이 작은 존재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하고 아무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자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정신을 가다듬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네브는 아기를 데리고 해안가 절벽 위에 자리한 별장으로 떠난다.

통 유리와 돌로 지어진 빅토리아 풍 거대한 별장에서도 배앓이에 시달려 자꾸 보채는 클리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나날은 계속됐다.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깐 바닷가 산책에 나선 네브는 그곳에서 작은 꼬마 여자아이를 발견한다. 다섯 살 남짓한 아이는 맨다리를 드러내고 텅 빈 해변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네브의 눈에 그 작은 아이는 마치 물의 요정이 나타난 것처럼, 환한 빛에 둘러싸인 착각을 불러 일으킬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번뜩 깨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조금 가까이 다가가니 뜻밖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 구멍이 숭숭 난 헤진 옷, 썩고 부서진 치아까지, 부모에게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이름 모를 이 아이를 '제시'라 부르기로 혼자 이름까지 정한 네브의 염려 섞인 눈빛을 알아챈 아이는 제발 경찰 같은 곳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애처로운 아이의 모습에 보호 본능이 확 피어난 네브는 그 때부터 자연스레 제시에게 손을 내민다. 네브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인 제시는 부활절 기간 내내 네브의 별장에서 지내며 육아에 지친 네브에게 예상치 못한 큰 힘을 선사한다. 이 작은 아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클리프를 돌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네브는 어쩌면 제시와 자신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시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네브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레아는 낡은 차 한대 외에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 밤마다 몸을 누일 곳을 찾아 다녀야 하는 신세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뛰어들다 보니 '제시'와 언니는 방치되기 일쑤였다.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네브와 레아는 제시를 통해 결국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작가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각각 들려주며 언뜻 보기에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는 두 여성 모두 가족 구조가 망가진 후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과 애정, 보살핌과 안정적인 삶을 간절히 바라는 똑같은 희생자임을 보여준다. '제시' 언니의 실종과 제시를 향한 네브의 깊어가는 애정, 지역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살(Sal)이라는 남자의 등장과 그와 네브와의 새로운 관계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향해 달려간다.

<저자 소개>

애나 조지(Anna George)는 호주 멜버른에 살면서 법조계와 영화, 텔레비전 산업에 종사해 왔다. 데뷔소설 『What Came Before』로 2015년 네드 켈리 앤 시스터스 최우수 데뷔작 범죄소설 부문(Ned Kelly and Sisters in Crime Best Debut Fiction)을 수상하고 2016년 국제 더블린 문학상(International Dublin Literary Award) 후보에 올랐다.



제목 : LOVE AND OTHER ALIEN EXPERIENCES
가제 : 사랑만큼 낯선 세상
저자 : Kerry Winfrey
출판사: Feiwel & Friends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소설

*** 애플 아이북스*(iBooks)* '7월의 도서*(Best of July Pic)*' 선정**
*** "우정, 로맨스, 서로 깔보며 놀리는 일상 등 고등학생들의 삶을 매력적으로 그리면서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비뚤어진 시설을 따뜻하게 다룬 소설" – 「북리스트」**
*** "주인공 말로리의 기발한 위트와 날카로운 풍자, 냉소적인 표현이 재미를 더한다. 말로리가 느끼는 혼란과 강렬한 고통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 아동도서센터*(Bulletin of the Center for Children's Books)***

아침마다 교실 책상 앞에 앉는 대신 맨 뒤에 올려진 노트북 화면을 통해 출석에 대답하는 여학생이 있다. 칠판 앞에 선 선생님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 마주보고, 줄줄이 앉은 반 친구들 뒤통수 혹은 옆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업을 듣는 이 학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 같은 건 전혀 없다. 팔다리 모두 멀쩡한데 웹 캠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말로리를 두고 몇몇 아이들은 분명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점점 불러오는 배를 숨기려고 저런다고들 수군댄다. 마약에 손을 댔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임신도 하고 마약도 한다고 확신하는 무리들도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말로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설명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그런 변명을 댈 경우 십중팔구 뭔가 잘못해서 체포됐거나 마약 문제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똑같은 소문은 낳았다. 물론 말로리가 갑자기 심각한 햇볕 알레르기를 앓는 바람에 하루 종일 지하실에서만 지낸다는 귀여운 추측도 있었지만, 몇 년씩이나 같은 학교에 다닌(전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모니카처럼 말로리는 이미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럼 아침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말로리는 유령이란 말인가? 어이가 없어도 일일이 찾아가서 따질 수 없는 말로리로썬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상태가 그 지경이 된 건 아니었다. 아빠가 여느 때와 같이 잠깐 바람 쐬고 온다며 주말에 어딘가로 갔을 때, 말로리는 늘 그랬듯 며칠 후에 돌아올 줄 알았다. 아빠엄마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는 것쯤은 고등학생 정도 되었으니 말로리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빠가 돌아오지 않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불안감도 커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대로 우리 가족은 박살 나는 건가? 떠날 생각이었다면 최소한 자신과 남동생 링컨을 앉혀놓고 뭐라 설명이라도 하고 작별 인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망보다 불안감과 초조함이 훨씬 더 컸던 말로리는 점점

더 그 감정에 온 정신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학기가 끝나고 제일 친한 친구 제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시내에 치즈 케이크를 먹으러 간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언뜻 아빠와 너무 닮은 체형을 가진 남자가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로리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가 그를 와락 껴안았다. "아빠!" 하고 부르면서. 깜짝 놀라 돌아본 그 남자는 아빠가 아니었고, 큰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말로리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어지러워진 말로리는 그 자리에 주저 앉은 동시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는 집으로 옮겨져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이 이상한 증상의 시작이었다. 몇 시간 후 현관 우편함에 편지를 가지러 나가려다 문을 나서자마자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다음 날 아침에는 급기야 현관문 밖을 나서려다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말았다. 바깥 세상이 온몸을 강력한 힘으로 조여버리는 기분, 숨통이 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급작스러운 증상이 말로리를 덮친 것이다. 엄마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왠 과잉 반응이냐고 혀를 끌끌 찼지만 말로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현관도 나서지 못하니 학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까지 여럿 집을 찾아와 상담을 하며 당황스러운 시간이 흐르던 중 말로리는 정신과 검사에서 '광장 공포증을 동반한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때부터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집은커녕 방문 밖도 거의 나가지 않는 '집순이'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말로리의 곁을 지켜주는 건 학교의 숱한 소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친구 제니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 남동생 링컨,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괴짜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외계인 사냥꾼'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말로리는 타고난 과학적 재능과 주도 면밀한 검색 실력을 총동원하여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관한 글들을 게시판에 올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말로리가 쓰는 글이나 댓글마다 사사건건 토를 다는 '빔미업'이라는 사람이 슬슬 심기를 거슬리게 해서 말로리는 교실과 웹 캠으로 연결된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짜증나는 사람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데 투자하고 있다.

평생 이대로 방 밖을 안 나가도 좋다고 생각해버린 말로리와 달리 링컨과 제니는 말로리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묘책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떠올린 건 마침 몇 달 앞으로 다가온 학교의 대대적인 행사, '동창회 파티'였다. 졸업 무도회처럼 매년 학교의 '퀸'을 뽑는 전통이 이어져온 이 동창회 파티에 말로리를 퀸 후보로 올려버리자고 합심한 두 사람의 계획은 어쩌다 성공하고,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래드가 파티의 파트너가 되어 주겠다고 나선다. 과연 말로리는 60일 넘는 자체 감금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낯선 듯 친숙한 '빔미업'의 실체는 누구일까? 말로리의 냉소적이고 위트 넘치는 언변과 그녀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그려지며 첫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데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리 윈프리(Kerry Winfrey)는 오하이오에 살면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HelloGiggles'에 글을 기고해 왔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FRIEND REQUEST
가제 : 친구 요청
저자 : Laura Marshall
출판사: Sphere
발행일: 2017년 7월 2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독일,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서스펜스와 후회, 구원의 이야기가 혼합되어 탄탄한 구조로 완성된 매력적인 소설.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능수능란하게 넘나들며 점차 긴장감을 높여간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Weight of Silence*』의 작가 헤더 구덴커프**

*** "클릭 한 번으로 지옥 같았던 십대 시절로 되돌아간 어느 성공한 여성의 삶을 폭로한 스릴러. 반전, 흡입력과 함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소설이다." – 영화배우 에린 켈리**

우리가 철 없을 때 저지른 실수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저지른 일'로 용서 받곤 한다. 어른 못지 않게 혹은 어른보다 더 큰 몸집을 하고서도 허세와 과도한 열의만 앞서갈 뿐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나이, 십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그렇게 실수를 해가면서 성장해가지만 범죄와 수용 가능한 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마리아 웨스턴 님이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6-7년이나 긴 세월이 흐른 뒤 어느 피곤에 절은 날 이메일 수신함에서 마주한 이 메시지는 루이스의 기억 저 편에 꽁꽁 묻어놓은 그 아슬아슬한 실수를 와락 깨우고 말았다. 루이스를 기겁한 건 깨어난 실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리아 웨스턴, 대학 입학 시험을 겨우 몇 주 앞둔 시기에 루이스가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온 그 아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다. 졸업 파티가 벌어진 날 실종된 후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 네 살 된 아들 헨리를 홀로 키우며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루이스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대신 온갖 까다로운 고객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늘 녹초가 된 채 저녁을 맞이했다. 사실 루이스를 더 지치게 하는 건 까다로운 고객들보다 아직 적응되지 않는 싱글맘의 삶이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한 남편 샘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기를 꿈꿨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 결혼 생활은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마흔을 훌쩍 넘은 중년의 나이에 아직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수십 년째 마음 깊이 사랑해온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그 사랑을 채 버리지 못해 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남아서 루이스를 더 힘들게 했다. 그나마 저녁마다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는 일이 조금 위안이 되었는데, 마리아의 친구 요청 메시지는 겨우 다시 찾은 것 같았던 일상을 산산이 부숴놓았다.

1989년의 루이스는 여느 여학생들처럼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부류로 일컬어지는 무리와 어

울리고 싶어서 매일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 중 그런 부류에 속한 소피와 가까워지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소피는 루이스보다 클레어를 비롯한 다른 여학생들과 따로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 아이들은 소피 때문에 어쩌다 루이스와 어울릴 뿐, 시내에 나가서 놀거나 방과후에 특별한 곳에 갈 일이 생기면 루이스를 제외시키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지만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공부벌레가 된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는 않았던 루이스는 어떻게든 소피 무리에 끼어보려고 매일 틈새를 노렸다. 마리아가 전학을 온 건 바로 그런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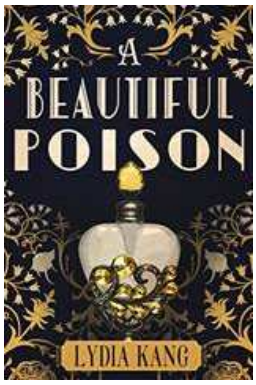
첫 만남부터 깊고 영리해 보이는 마리아의 눈동자를 보면서 루이스는 이 쾌활한 아이가 자신을 잘 이해한다고 느꼈지만, 마음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이전 학교에서 친구들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엉뚱한 시기에 전학을 왔다는 마리아의 설명은 곧 소피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을 통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괴상한 소문으로 일파만파 번져갔다. 결국 마리아는 지저분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어 반 전체는 물론 학교 전체의 왕따가 되어 버렸고 루이스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같이 왕따가 될 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른 척했다. 짓궂은 아이들의 괴롭힘은 나날이 거세지고, 급기야 졸업 파티가 열린 날, 마리아가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마리아는 파티가 열린 곳에서 조금 떨어진 강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루이스는 좀 더 일찍 나섰더라면, 도를 넘은 괴롭힘에 모른 척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웠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예 없던 일처럼 지워버리고 살았던 일인데, 그 죽은 마리아가 어떻게 친구 요청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마리아 행세를 하는 거라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장난을 치는 걸까? 루이스는 점점 더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연달아 받게 되고, 곧 다가올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이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나 진실을 캐려는 루이스의 노력은 생각지도 못한 펀치가 되어 되돌아온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소피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고, 헤어진 남편이자 소중한 아들의 아버지인 샘의 이상한 행동들은 마리아의 죽음을 둘러싼 해묵은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루이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루이스는 과거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디까지를 어린 날의 '실수'로 용서할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 뒤늦게 드러난 그 실수의 엄청난 대가와 갑작스레 마주한 사람들의 후회와 용서, 다시 일어서려는 애처로운 몸부림을 놀라운 반전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낸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마셜(Laura Marshall)은 영국 켄트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미발표된 글로 2016년 '루시 카벤디시 상(Lucy Cavendish Fiction Prize)' 결선 후보에 오르고 2016년 '베스 소설 상(Bath Novel Award)' 2위에 올랐다.



제목 : A BEAUTIFUL POISON
가제 : 향긋한 독약
저자 : Lydia Kang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분량 : 350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 스릴러, 미스터리

*** *2017*년 *7*월 아마존 킨들 퍼스트 셀렉션*(Kindle First Selection)*으로 선정**
*** "박학다식한 인물들, *1918*년 뉴욕을 휩쓴 전염병과 질병을 가장한 미스터리에 관한 이 소설은 제목처럼 흥미롭다. 영리하고, 흡입력과 중독성 있는 이야기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Progeny*』의 작가 토스카 리**
*** "미스터리와 역사,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소설. 클래식한 추리소설에 날카로운 위트가 가미되어 있다." – 『*Creep*』의 작가 제니퍼 힐리어**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싶은 살인마에게 온 나라를 휩쓴 전염병만큼 운 좋고 편리한 수단이 있을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인물이건 길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거지건 픽픽 쓰러져 목숨을 잃게 만든 무서운 전염병, 스페인 독감이 맹위를 떨치던 1918년 뉴욕에 그 혼란을 틈타 살인을 벌이는 아주 영리한 존재가 나타난다. 자칫 병으로 착각할 뻔했던 이 끔찍한 죽음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은 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저택에 손님으로 온 재스퍼라는 청년이었다. 뉴욕에 법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 도입한 벨뷰 병원의 유명한 검시관 밑에서 독학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온 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채 발견된 희생자가 남긴 독특한 냄새를 알아챘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냄새, 4년 전 나란히 숨진 엄마와 아빠에게서 풍기던 아몬드향 같은 그 냄새는 바로 청산가리 냄새였다.

밸뷰 병원에서 재스퍼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직위는 '건물 경비원'이다. 4년 전만 해도 어릴 때부터 늘 꿈꿔온 의사가 될 줄만 알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재스퍼의 삶은 부모님이 자살해버린 그 비극적인 날 이후 내내 곤두박질치기만 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 의대에 입학할 때까지 병원 근처에서 지내고 싶었던 그는 낮에는 경비로 일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공부했다. 그런 노력이 한 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엘린의 약혼 기념 파티장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사망 사고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집어낸 것이다.

엘린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내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으며 자랐다.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로 여겨지는 열여덟 살에 뉴욕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문 집안의 아들과 약혼을 하게 됐으니, 너무나 기뻐하는 부모님만큼이나 엘린도 조금 뿌듯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그나마 누리던 자유로운 삶과는 영원히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만든 새장 속에 갇혀 산 것으로 모자라 정말로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더 촘촘한 철창

으로 만들어진 다른 새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삶, 그것이 상류층 자제로 태어난 엘린의 정해진 운명이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약혼 파티에 부모님의 거센 반대도 무릅쓰고 어릴 적 친구인 재스퍼와 버디를 무조건 초대하기로 마음 먹은 것도 이 소중한 자유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즐기고 싶어서였다. 들판을 함께 뛰어다니고, 피곤하면 서로 머리를 기대며 잠이 들고, 주방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간식을 훔쳐 먹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온 재스퍼와 버디, 두 친구는 같이 어울리기에 '적절치 않다'는 아버지의 판단 때문에 4년 전부터 얼굴도 보지 못했다. 쇠처럼 차가운 아버지는 빚더미에 오른 재스퍼의 아버지를 싸늘하게 외면했고, 엘린의 엄마와 엘린의 옷 시중을 드는 하녀로 함께 살았던 버디의 엄마와 버디를 모두 내쫓아버렸다. 이제 결혼하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아는 엘린은 두 친구를 파티에 초대했고, 못 보고 지낸 세월이 무색할 만큼 다시 어린 시절의 환희와 따뜻한 우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초대 손님 중 한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숨을 잃고, 재스퍼가 이 죽음이 분명 독살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세 친구의 조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모험이 된다.

엘린은 어려서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자답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깊이 공부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잠재운 호기심은 첫 번째 희생양에 이어 엘린과 재스퍼, 버디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연이어 독살된 사체로 발견되면서 다시 깨어나고, 엘린은 재스퍼와 함께 제 1차 대전만큼이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스페인 독감의 가면을 이용해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를 찾아 나선다. 과연 이들은 철저히 모습을 감춘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엘린의 집에서 쫓겨난 후 시계공장에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착용할 시계 만드는 일을 시작한 버디는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드러난 라듐에 수 시간씩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지만 그 시절에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병약해질수록 유일한 삶의 낙인 두 친구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려는 버디의 안쓰러운 노력과 독살 사건의 진범을 잡는 것을 그토록 원하던 의학 공부의 길로 들어설 지름길로 활용하고픈 재스퍼의 야망, 그리고 철부지 부잣집 아가씨의 역할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려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짜 사랑에 서서히 눈을 뜨게 된 엘린의 이야기는 좀처럼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범인만큼 읽는 내내 호기심을 자아낸다.

1900년대 초반, 전쟁과 전염병의 고통에 몸살을 앓던 뉴욕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면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는 동시에 살인, 미스터리라는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읽는 재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리디아 강(Lydia Kang)은 콜롬비아 대학교와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벨뷰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현재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소설과 시, 비소설을 쓰는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TEN THINGS VIDEO GAMES CAN TEACH US
가제 : 비디오게임으로 배우는 철학
저자 : Jordan Erica Webber, Daniel Griliopoulos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철학/ 기술

*** 특정 부류의 문화로 여겨지는 비디오게임에 담긴 놀라운 철학적 가치**
*** 철학을 생활 속에서 가깝게 접하는 수단으로 비디오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비디오게임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한 번도 접해볼 일이 없는 사람은 물론 가족, 친구 중에 게임에 푹 빠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 있다. 가볍게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오락거리 내지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지만 잔혹하고 선정적인 게임 화면을 보면 살인, 전쟁, 폭력을 시뮬레이션하는 '이상한' 취미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디오게임은 그 고유한 특성상 다른 오락거리나 매체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바로 '사고 실험'이다.

다섯 명이 타고 있는 승합차와 운전자 한 명 밖에 타고 있지 않은 승용차가 좌우에 서 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가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반드시 틀어야만 한다면 어디로 향해야 할까? 요즘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초지능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억을 모두 기계장치에 업로드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기억을 원래 주인과 어느 정도 동일한 주체로 보아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할 뿐 사실 거대한 가상현실의 일부라는 견해도 있는데,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의문과 쟁점들은 모두 철학 강의나 책에서나 다룰 법한 내용이지만, 놀랍게도 비디오 게임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해볼 수 있다.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각각의 장단점, 옳고 그른 점을 판단해보는 '사고 실험'은 윤리적,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실험해볼 수 없는 일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 책이나 영화, 게임은 독창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사고 실험을 일상적인 배경 속에서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철학을 공부하고 비디오 게임에 관한 글을 써 온 두 저자는 특히 게임의 경우 이용자와 게임 속 환경, 등장인물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점에서 책과 텔레비전, 영화보다 사고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비디오 게임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에 쉽게 다가감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두 사람이 각각 절반씩 완성한 총 열 개의 장에서 우선 철학적인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 '아는 것' 즉 지식의 습득과 인간

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본 뒤 비디오 게임의 기본 환경인 가상 현실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본 뒤 시간이 지나도 겉모습의 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통찰하고, 두 번째 저자가 쓴 6장부터는 도덕적인 물음, 즉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갈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어 '선'의 의미가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죽음과 살인의 견지에서 바라본 생의 종결을 이야기한다. 두 저자는 이 모든 주제를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비디오 게임의 스토리라인, 설정, 등장인물의 특성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게임 개발자, 철학가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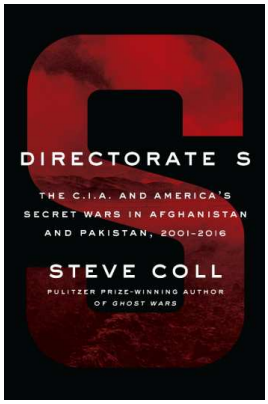
<목차>

서문
머리말. 왜 게임인가? 왜 철학인가? /
어제 했던 '림보(Limbo)' 게임
1장. 사고실험 도구로서의 비디오 게임
2장. 지식과 회의적인 사고
3장. 가상현실: 실제 현실일까?
4장. 마음 속의 철학
5장. 정체성과 생존
6장. 자유의지: 게임의 고유성
7장. 임무와 '울티마(Ultima)' 게임에서 선의 의미
8장. 공리주의: '바이오웨어(Bioware)' 게임의 악당
9장. 정치학: 독재정치부터 민주주의까지(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다)
10장. 죽음, 살인, 극복: '스펙 옵스(Spec Ops)', '투 더 문(To the Moon)' 게임
맺음말
부록 1- 4

<저자 소개>

조던 에리카 웨버(Jordan Erica Webber)는 영국 워릭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현재프리랜서 저술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가디언」에 글을 기고해 왔다.

댄 그릴로폴로스(Dan Griliopoulos)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정치·철학·경제를 전공하고 현재 기술업체 '임프로버블(Improbable)'에서 콘텐츠 편집을 맡고 있다. 비디오 게임에 관한 글을 전문적으로 써 왔다. 「뉴 스테이츠먼」, 「가디언」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DIRECTORATE S

가제: S 위원회

저자: Steve Coll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7년 8월 22일

분량: 784 페이지

장르: 정치

*** 저서 『*Ghost Wars*』*(2004)*로 퓰리처 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가 밝힌 아프가니스탄 전쟁**

*** *2001*년 *9/11* 테러로 세상에 드러난 미국 *CIA*와 파키스탄 정보부, 아프가니스탄의 보이지 않는 결탁과 갈등, 불화**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테러가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지자 중앙정보부(CIA)는 곧바로 공격 주체로 지목된 빈 라덴과 그 일당을 소탕할 계획을 짜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테러 사건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미국과 알카에다, 탈레반의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CIA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 국가와 은밀하고 밀접한 외교 관계를 형성해 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이 정보기관과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총동원하여 테러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시도했던 각종 전략과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 이전의 오랜 갈등을 시대적 순서로 세밀하게 제시한다. 실패한 전쟁이라는 오명을 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이 휘말리게 된 전말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건재하던 시절, 이 최대의 적을 없애기 위해 탈레반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나, 이후 파키스탄 정보부와 손을 잡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표면적으로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고, 급기야 'S 위원회'라 불리는 파키스탄 정보부 산하 기밀 분과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은밀한 군사훈련과 무기 확보를 시도하는 동시에 탈레반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어쩌면 이때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9/11 테러 이후 이 전쟁이 처음 발발한 당시에는 미국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제 전 세계는 국방부의 오만한 자신감과 전쟁 자원의 소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자극 받은 무슬림 세계의 커다란 반발로 결국 처참히 실패한 전쟁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이러한 요인 외에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로 파키스탄의 'S 위원회'에서 찾는다. 빈 라덴의 잇따른 도주 성공, 자취를 감춰버린 탈레반 지도자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한계를 여실이 드러내며 실패한 작전들이 뒤엉켜 영토 크기로는 미국 텍사스 주 정도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악전고투를 벌여야 했다.

저자는 전문적 지식과 철저한 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베일에 싸인 파키스탄 정보부

의 'S 위원회'가 맡은 기능과 텔레반을 향한 파키스탄과 미국의 시각 차이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미국의 전쟁 실패 요인을 분석한다. 넓은 차원에서는 미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이 복잡한 외교적, 군사적 관계에 포함된 개인과 정치적 영향력을 범죄 수사를 벌이듯 치밀하게 관찰하여 잘못된 외교 결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감 없는 역사의 진실을 알려준다.

<목차>

지도 / 등장인물 소개
머리말
1부. 맹목적인 전쟁: 2001년 9월- 2001년 12월
1. "칼리드에게 뭔가 일이 생겼어"
2. 심판의 날
3. 이들과 같은 친구들
4. 위기 관리
5. 재앙이 따른 성공
2부. 평화의 상실: 2002- 2006
6. 작은 변화
7. 카르자이와 탈레반
8. 수수께끼 (이하 생략, 총 13장까지 구성)
3부. 최선의 중재법: 2006- 2009 (14- 22장)
4부. 환상의 종말: 2010- 2014 (23- 35장)
맺음말: 피해 영향 진술서

<저자 소개>

스티브 콜(Steve Coll)은 저서 『Ghost Wars』(2004)로 퓰리처 상을 수상한 저술가이자 콜롬비아 대학원 저널리즘 학과장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워싱턴에 위치한 공공정책연구소 '뉴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의 대표를 역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20년간 일한 경력이 있으며 1990년에도 해설 저널리즘(explanatory journalism)으로 퓰리처 상을 수상했다. 현재 뉴요커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SECRETS OF THE HUMAN BODY
가제 : 인체의 신비
저자 : Chris van Tulleken, Xand van Tulleken and Andrew Cohen
출판사: Fireflies
발행일: 2017년 9월 2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건강/의학

*** 동일한 제목의 *BBC* 시리즈로 제작되어 방영**
*** *"HIV* 연구, 전쟁 지역의 의료지원, 에볼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두 의사는 너무나 다정하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다. 머리를 곤두서게 만드는 놀라운 인체의 이야기에 마르지 않는 유머를 곁들여 과학과 함께 전한다." – 「이브닝 스탠다드」**
*** 의사이자 영국 *BBC*의 대표적인 의학 전문 프로그램 인기 진행자인 쌍둥이 형제가 저자로 참여한 흥미로운 인체의 신비**

뼈는 206개, 심장은 하나, 눈 두 개, 손가락 열 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수수께끼 같은 신기한 현상과 비밀들이 구석구석 존재한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과 어떻게 다를까? 직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부학적으로 드러난 특징으로 우리는 인체를 다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 놀라운 미스터리로 가득한 인체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전부터나 가능해진 일이다. 동명의 제목으로 영국 BBC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이 책에서 의사이자 방송인인 두 쌍둥이 형제는 최첨단 기술과 과학을 적용하여 이제 막 그 비밀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인체의 신비를 세밀한 디지털 자료와 분석을 통해 생생하게 분석한다. 그저 비슷비슷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인체에서 발견된 결코 범상치 않은 비밀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인체의 비밀스러운 기능과 특징을 학습과 생존, 성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묶어서 각 장마다 소개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유전자의 생존'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두 저자는 흥미롭게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식(번식) 기능은 유전자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필수가 아니기에 이 세 가지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세 가지 요소는 절대 개별적으로 발휘될 수 없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다. '학습'은 단순히 사실 정보와 기억을 얻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사회적 주변 세계를 체화시키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두 저자는 최신 과학의 발전으로 드러난 기억이 형성되고 뉴런을 타고 이동하여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복원되는 전 과정과 단기기억, 장기 기억이 저장된 곳을 되찾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왜 개개인의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한다. '성장'에 관한 장에서는 학습을 통한 성장과 함께, 인간의 뇌 크기가

출생 당시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2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그 와중에도 학습 과정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장치로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학습과 성장은 세 번째 요소인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위라 할 수 있다. 두 저자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 과정에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흥미로운 인체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인체의 비밀로 여겨지던 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도 함께 소개한 유익하고 재미 있는 의학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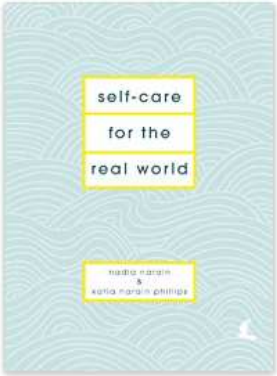
비밀
성장
학습
생존
미래

<저자 소개>

잰 반 툴켄(Xand van Tulleken)은 BBC와 채널4에서 <Operation Ouch>, <Blow Your Mind>, <Horizon,Secret Life of Twin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CNN, BBC1, BBC2, MSNBC 등에서 의학 전분분석가로도 활약해 왔다.

잰과 쌍둥이 형제인 크리스 반 툴켄(Chris van Tulleken)은 <Trust Me>, <I'm a Doctor>, <Horizon>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앤디 머레이(Andy Murray)와 함께 2013년 브릿리스트(BritList) 선정 '올해의 남성 아이콘' 결선 후보에 올랐다.

앤드류 코헨(Andrew Cohen)은 BBC 과학부 부장이자 해당 방송사에서 시리즈로 제작한 <Secrets of the Human Body>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Horizon>, <the Wonders trilogy>, <Stargazing Live> 등 여러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았다.



제목 : SELF- CARE FOR THE REAL WORLD

가제 : 현대인을 위한 자기관리 법칙

저자 : Nadia Narain and Katia Narain Phillips

출판사: Cornerstone

발행일: 2017년 12월 28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건강

*** "몸의 겉과 속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매뉴얼' – 영화배우 리즈 위더스푼**

*** "내 선생님이자 친구인 나디아의 조언을 항상 귀담아 듣고 카티아의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이 책은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다.'" – 영화배우 릴리 콜**

*** "건강하고 영리한 생각, 깊은 지혜가 담긴 책" – 모델 겸 영화배우 시에나 밀러**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은 정신 없이 흘러가고,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이어지는 촘촘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스트레스에 짓눌려 괴로워한다.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조차 내기가 힘든 현대인들의 고된 삶을 대변하듯 올해는 '자기관리'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인스타그램에서 자기관리라는 해쉬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250만 건이나 업로드되고,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로 여러 차례 다루어진 것에 이어 「엘르」에서도 소개됐다.

수십 년 전부터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조언해온 두 전문가는 자기관리란 쉴 새 없이 파도가 몰려 오는 물 속에서 나무를 하나하나 이어 스스로 작은 배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배가 있어도 파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데다 맨몸으로 휩쓸려 가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두 저자는 자기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 절묘한 비유에 꼭 맞는 자기관리의 실천 방법, 사고의 전환 방안을 다양한 주제로 설명한다. 생각만 해도 엄두가 안 나는 대대적인 변화나 엄격한 지침을 던지는 대신 개개인이 가장 좋은 '버전'의 자기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다양한 팁을 제공한다. 먹고 마시는 식생활부터 대인관계, 감정 관리,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단순하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일상에 찌든 사람들 중에는 자기관리란 시간이 남아돌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비싼 마사지를 받고, 손발톱을 화려하게 관리 받거나 화려한 운동기구가 가득한 헬스장에서 개인지도를 받는 것이 자기관리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또 한 편으로는 자기관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에서 나온 오해다. 그러나 자기관리의 의미는 스스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씻고, 세상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기능하는 대신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까지 자기관리라고 할 수 있다. 두 저자는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나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또한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더 즐겁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눈길을 돌리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관리는 결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직장에 다니거나 매일 해야 할 일이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자신이 '원하는 것' 대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는 두 저자의 조언처럼 큰 변화보다 발상의 전환, 작지만 중요한 행동들로 삶을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보람 있고 알차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접할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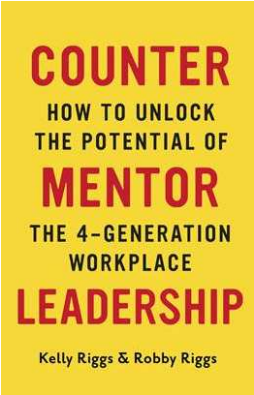
머리말
사랑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할 때/ 음식은 강력한 자기관리 등
희망
 비교하는 것/ 자신감/ FOMO/ 삶이 완벽하지 않을 때/ 변화는 찾아온다
평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실감/ 사랑을 잃는 것/ 몸이 아플 때
즐거움
 대인관계와 자기관리/ 친구와 가족/ 내가 속할 무리를 찾는 것/ 흘려 보내라 등
빛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자/ 일터에서의 자기관리/ 건강한 여행 가이드/ 집이 최고다 등
맺음말

<저자 소개>

나디아 나레인(Nadia Narain)은 영국의 가장 유능한 요가 강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런던 '트라이 요가센터(Triyoga Centre)에서 요가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보그」, 「엘르」 등 잡지에 정기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양초, 향수 등의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작하여 판매한다.

카티아 나레인 필립스(Katia Narain Phillips)은 20년 이상 건강과 식품, 마사지 분야에서 일해왔다. 「레드 매거진」에서 '건강한 음식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기도 했으며 10년 전 생식 전문 카페를 개업했고 현재는 런던에서 넥타 카페(Nectar Café)를 운영 중이다.

제목 : COUNTER MENTOR LEADERSHIP
가제 : 리더가 멘토는 아니다
저자 : Kelly Riggs and Robby Rigg
출판사: Nicholas Brealey
발행일: 2018년 3월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경영



***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갈등과 반목, 그로 인한 경영 손실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리더십의 방향**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시간 딱딱 맞춰 잘 해내는 유능한 직원은 조직에서 눈에 띄게 마련이다. 당연히 승진의 기회도 더 빨리 찾아오고, 곧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관리자'가 된다. 오늘날 크고 작은 기업의 경영진이 빠진 큰 착각 중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리더 역할도 거뜬히 잘 해내리라는 생각이다. 그냥 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들을 자신처럼 유능한 직원이 되도록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 성과를 크게 높일 거라는 기대가 새로운 관리자를 임명할 때마다 끊임없이 등장한다. 수십 년에 걸쳐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기대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오해는 반복되고 있을까? 승진만 시켜주면 뛰어난 리더가 되리라는 기대로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기업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두 저자는 살아온 방식도 사고 방식도 현저히 다른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같은 조직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까다로운 경영 이론이나 학계의 견해를 일체 배제하고 두 사람이 25년 넘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조직 내 갈등과 불화를 바탕으로 두 저자는 현재 50대 이상이 주를 이루는 기업가와 스스로를 20대 청년으로 여기는 30대 젊은 기업인들이 어느 지점에서 크게 부딪히는지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원래 젊은 세대는 늘 먼저 세상을 산 이전 세대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전수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고 구 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배울 것은 열정이 전부라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오랜 전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찾아왔다. 디지털 기술, 소셜 미디어가 기업 경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른 지금, 젊은 세대는 구 세대가 따라가기는커녕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그 낯선 세상에 빠른 속도로 적응한다. 이에 두 저자는 '상의하달' 방식의 경영 구조에서 벗어나 지식이 전수되는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식, 젊은 세대로부터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지식의 핵심이 무엇인지 배우고 꼭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뒤집는 이 새로운 구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책은 현재 업무 현장의 실상을 낱낱이 분석하는 한편 밀레니엄 세대만이 채워 줄 수 있

는 기업의 한계, 틈새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다. 이어 직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감시하려는 '마이크로 경영' 방식이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 일에 흥미를 잃은 밀레니엄 세대가 의욕적으로 일에 뛰어들 수 있게끔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한다.

세대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경영 지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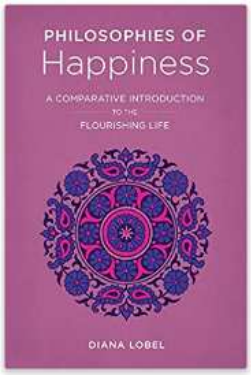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이 책 활용법
1. 오늘날의 일터
2. 너무나 힘든 리더십의 길
3. 카운터 멘토 리더십 모델
4. 카운터 멘토 리더십 솔루션

<저자 소개>

켈리 릭스(Kelly Riggs)는 세일즈맨 출신으로 전미 '올해의 세일즈맨'에 두 차례 선정됐다. 이후 20년 이상 미국, 캐나다에서 경영진 관리와 교육 분야에서 저술가, 강연자, 경영 코치로 활동해 왔다.

로비 릭스(Robby Riggs)는 보스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기업의 전략 혁신을 전문적으로 돕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제목 : PHILOSOPHIES OF HAPPINESS
가제 : 세계의 행복 철학
저자 : Diana Lobel
출판사: Columbia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철학

*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전통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렇게 수많은 전통을 비교한 성과는 본 적이 없다." – 조지타운 대학교 에린 *M.* 클라인**
*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구 지역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비교 분석한 인상적인 연구. 종교학, 철학, 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학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이다." – 홍콩 시티대학교, 필립 *J.* 아이반호**

행복이라는 말을 정확히 정의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단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이론가 대니얼 네틀(Daniel Netttle)이 제시한 것처럼 기분이 좋은 상태, 만족스러울 때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행복하니?"라고 물었을 때의 의미처럼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발전해가는 삶도 행복에 속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행복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에우다이모니아(Eudainomia)'라는 말로 일컬어졌다. 저자는 가장 넓은 범위의 행복에 해당하는 이 행복을 추구할 대 비로소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 종교적 전통에서 이러한 행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성취하고자 노력해 왔는지 분석한다.
즐거움, 기쁨은 인간이 번성할 때 따르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면 행복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번성케 하는 구체적인 행동,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 그리스 철학자와 유교, 노자 사상, 장자 사상 등 중국의 전통 사상을 비롯해 일본의 불교 전통과 아우구스티누스, 마이모니데스로 대표되는 서구의 전통 사상, 수피교의 사상과 최근 들어 널리 알려진 마음챙김 사상, 창의적 행동의 개념을 총망라하며 이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전통적 영역에서 인간의 충만한 삶과 행복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삶,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폭넓은 개념에서의 행복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통찰한다.

저자는 다양한 지역과 시대,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에 공통적으로 담긴 여섯 가지 핵심을 소개한다. 행복한 삶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인지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은 물론 주변 세상까지 포함된다. 두 번째 요소는 직관적인 지혜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행동에 활기와 효율성이

더해진다. 세 번째 요소는 관계와 유대감으로, 더 큰 집단의 일원이자 전체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사랑과 헌신, 다섯 번째는 창의적인 참여이고 여섯 번째 요소는 객관적인 목적이 있는 의미와 가치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철학과 전통마다 이 공통 요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표현되지만 개개인의 존재와 삶을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요소로 본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지역과 문화, 전통을 아우르는 행복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고찰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가득 담긴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아리스토텔레스: 행동하는 삶
2. 에피쿠로스: 행복은 곧 즐거움
3. 유교의 행복: 의식, 인정, 음악, 즐거움
4. 도교: 주의 깊은 인식, 애쓰지 않는 편안한 행동(무위)
5. 바가바드 기타: 집착하지 않는 행동, 보편적 정신
6.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혼이 행복한 삶
7. 마이모니데스: 배움과 기도, 헌신에서 얻는 기쁨
8. 수피교의 사랑의 길: 아타르의 '새들의 회의'
9. 동서양의 마음챙김 방식
10. 도겐의 소토 선종, 순류 스즈키의 '선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
11. 창의적인 참여와 삶의 기술
결론

<저자 소개>

다이애나 로벨(Diana Lobel)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Between Mysticism and Philosophy』(2000), 『A Sufi- Jewish Dialogue』 (2006), 『The Quest for God and the Good』 (Columbia, 2011) 등이 있다.